

7/ 현대 일본 우익 대중주의의 알고리즘

고바야시 요시노리 『전쟁론』의 언설과 이미지

한정선



한정선(韓程善)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근현대 일본의 사상사, 문화사 전공. 국문 저서로는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공저, 일조각, 2006)가 있다. 이 저서는 2008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2010년 일본어로 번역되어 『漫画に描かれた日本帝国』(明石書店)로 출간되었다. 영문 저서로는 *An Imperial Path to Modernity*(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가 있다. 최근에는 현대 일본의 전쟁유적 보존운동을 통해 기억과 역사의 문제를 시민 사회와 연동지어 고찰하면서, “Conserving the Heritage of Shame”(*Journal of Contemporary Asia*, 2012)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국문 및 영문 논문이 다수 있다.

1. 머리말

근대 이래 서구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보수, 반동세력을 ‘완고한 타자’로 보면서, 그들의 ‘수사’(rhetoric)를 분석한 앨버트 허시먼(Albert O. Hirschman)은 “거대한 집단들 사이의 상호 분리는 내가 보기에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 ‘대중사회’의 파편화된 인간 소외보다 훨씬 더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이해하기 힘든 타자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¹ 허시먼이 제기한 문제는 일본 우익이라는 ‘완고한 타자’와 역사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에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은 정치화된 특정 보수, 우익집단에 의한 역사 왜곡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 우익의 욕망, 신념, 논쟁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에게도 전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인터넷과 같은 빠르게 진화하는 매체의 발전과 연동되어 급속히 유동화되고 있는 현대 일본사회에서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거리로 나온 넷우익”일 것이다.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在日特權を許さない市民の会, 이하 약칭 재특회)이라는 집단은 원래 사이버 공간에서 우익적 정보와 사상을 공유하는 집단인데, 이 모임은 더 이상 사이버 공간에 머물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와 일본사회의 소수자, 외국인 배격 행위를 집단적 시위로 표출하고 있다.² “넷우익” 세력은 1990년대에 활성화된 “폴뿌리 보수운동”에서 사상적, 운동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폴뿌리 보수운동”은 “좌를 기피하는” “보통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구조이며, 운동의 구심점으로 “좌편향”된 일본의 역

1 앨버트 O. 허시먼 지음, 이근영 옮김,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The Rhetoric of Reaction*),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2010, 16쪽.

2 安田浩一, 『ネットと愛国: 在特會の闇を追いかけて』, 講談社, 2012. 이 책은 김현욱에 의해 『거리로 나온 넷우익: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보수가 되었는가』(후마니타스, 2013)로 번역되었다. 인용은 번역본을 사용했다.

사 교과서를 문제 삼고 있다.³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전통 우익의 수사를 차용하면서도 “아이덴티티의 핵”으로서 천황을 신봉하는 전통 우익 세력과 대조적으로 천황제에 대한 신념이 희박하며, 기존의 우익 세력을 “확성기를 단 차를 타고 다니는 우익”[街宣車右翼]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⁴ 이러한 ‘신보수적’ 경향은 특히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전후세대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전후세대는 많은 경우 우익의 정보, 수사, 서사를 텍스트와 시각 이미지가 공존하는 만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체내화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풀뿌리 보수운동”에 참여하게 된 K군(23세)은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오만주의 선언』이 “보수적 사상과 활동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라고 말하고 있다.⁵ 재특회의 일원으로 재일코리안 배경 시위에 참가한 29세의 여자 회사원의 경우는 “2채널에서 정보를 검색하거나 『혐한류』(嫌韓流)를 읽거나 하면서 재일특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⁶ 또 다른 재특회 회원인 아라마키 하루히코(47세)는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책을 읽고, 『산케이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가와히가시 다이료(40세)는 “활자가 싫어서 책은 잘 안 읽으며” 대신에 “인터넷과 텔레비전”에서 “지식”을 얻고 있다고 한다.⁷

이처럼 1990년대의 “풀뿌리 보수운동” 그리고 최근의 “거리로 나온 넷 우익”은 시각 이미지와 접목된 보수, 우익의 수사와 서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사회운동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인기를 얻은

3 이와 관련해서는, 小熊英二, 「〈左〉を忌避するポピュリズム」, 小熊英二・上野陽子, 『〈癒し〉のナショナリズム: 草の根保守運動の實證研究』,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3.

4 上野陽子, 「〈普通の市民たちによる「つくる会」のエスノグラフィー: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神奈川県支部有志団体「史の会」をモデルに」, 小熊英二, 上野陽子, 『〈癒し〉のナショナリズム: 草の根保守運動の實證研究』, 132쪽.

5 上野陽子, 「〈普通の市民たちによる「つくる会」のエスノグラフィー: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神奈川県支部有志団体「史の会」をモデルに」, 115쪽.

6 야스다 고이치, 『거리로 나온 넷우익』, 66쪽. ‘2채널’은 1999년에 만들어진 게시판 웹사이트(textboard)로 익명성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http://www.nytimes.com/2004/05/09/world/japanese-find-a-forum-to-vent-most-secret-feelings.html?src=pm> 참조. 『혐한류』는 원래 인터넷에서 소비되었던 만화인데, 2005년에 책으로 출판되면서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정선, 「조경수역에서 표류하는 일본: 한류와 혐한류를 통해 본 현대 일본사회」, 『동북아역사논총』 21호, 2008년 9월 참조.

7 야스다 고이치, 『거리로 나온 넷우익』, 127쪽과 130쪽.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의 만화는 기존의 출판매체를 활용하면서 우익의 감정과 사관을 성공적으로 가시화했다. 고바야시는 1975년 『동대일 직선』(東大一直線)이라는 만화를 발표하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 다양한 사회문제 일반에 대한 비평을 주간지 『SPA!』에 『오만주의 선언』(ゴーマニズム宣言)으로 연재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이어 주간지 『SAPIO』에 『신오만주의 선언』을 연재하기 시작했고, 특정 주제별로 특집 『신 오만주의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시기는 보수, 우익 세력이 “자유주의사관”이라는 미명 하에 역사 수정 움직임에 본격화한 시기이기도 하다. 고바야시는 1997년에 만들어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의 핵심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시기의 고바야시의 생각과 활동이 응축되어 발표된 것이 1998년부터 발표한 『신오만주의 선언 특집 전쟁론』(新ゴーマニズム宣言 SPECIAL 戦争論, 이하 『전쟁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리즈는 6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⁸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우익 사상을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논문은 1990년대 대중적 인기를 얻은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전쟁론』을 중심으로 현대 일본에서 유통, 소비되고 있는 우익 대중주의의 언설과 가시화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고바야시의 언설과 이미지는 전통적 우익의 사상과 수사를 공유하는 반면 차이점도 드러난다. 근대 이래 일본에서 나타난 우익 세력은 역사적으로 애국적 “지사”(志士)를 중심으로 한 행동주의자들의 집단이다.⁹ 정치적으로는 정부와 군부와 같은 기성세력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일본 제국 팽창을 도모했고, 정당정치를 불신했다.¹⁰ 사상적

8 Philippe Pons, “A Cartoonist Rewrites Japanese History,” *Le Monde Diplomatique*(Oct. 2001), <http://mondediplo.com/2001/10/09manifesto> 참조.

9 근대 일본에서 나타난 우익 세력과 관련해서는 E. H. Norman, “The Genyosha: A Study in the Origins of Japanese Imperialism,” *Pacific Affairs*, 17(3), September 1944; 荒原朴水, 『大右翼史』, 秀文社, 1966; 한상일, 『일본 제국주의의 한 연구: 대륙낭인과 대륙팽창』, 서울: 까치, 1977; 한상일, 『일본의 국가주의: 소화유신과 국가개조운동』, 서울: 까치, 1988 참조.

10 우익 활동가들과 군부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Kitaoka Shin'ichi, “China Experts in the Army,” Peter Duus, Ramon H. Myers, & Mark R. Peattie eds., *The Japanese Informal Empire in China, 1895~1937*,

으로는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및 기존의 전통적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와 대조적으로 천황을 매개로 한 국가지상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¹¹ 고바야시의 『전쟁론』은 정당을 포함한 기성세력에 대한 불신,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지점에서는 역사적 우익 세력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러나 동시에 천황에 대한 무관심과 대중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향하는 점은 기존 우익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고바야시의 만화와 활동에 대한 분석은 일정 정도 축적되어 있으나, 많은 경우가 만화의 서사 분석 그리고 이러한 우익적 만화가 대중적 인기를 갖게 되는 사회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² 그러나 만화(comics)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문자의 공존이라는 특징을 고려할 때, 보다 정밀한 서사 전개의 가시화 전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¹³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점이 고바야시 요시노리 만화의 대중적 인기와 젊은 세대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바야시의 『전쟁론』을 언설과 이미지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언설 전략은 반(反)기성세력적, 상식주의적 그리고 국가귀속적이라는 세 가지 특징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櫻井良樹, 『辛亥革命と日本政治の變動』, 岩波書店, 2009, 88쪽, 90쪽, 91~94쪽 참조.

- 11 자유주의, 보수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를 유럽지성사 속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로버트 니스벳 저, 강정인 역, 『보수주의』, 서울: 이후, 2007; C. B. Macpherson,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H. Stuart Hughes, *Consciousness and Society: The Reorientation of European Social Thought, 1890~1930*, New York: Vintage Books, 1977 참조. 일본적 맥락에서는 일본 보수주의와 관련해서는, 北岡勲, 『日本保守主義』, 御茶ノ水書房, 1992; Kenneth B. Pyle, "Meiji Conservatism," Marius B. Jansen ed.,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 5: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12 예를 들면, 小熊英二, 「〈左〉を忌避するポピュリズム」; 강기철, 「고바야시 요시노리 만화에 나타난 사회적 가치 변화 요소에 관한 연구」, 『일어교육』 28집, 2004년 6월; 강기철 「고바야시 요시노리 만화에 나타난 역사 왜곡과 정치적 대중화에 관한 연구」, 『일어교육』 59집, 2012년 3월; Rumi Sakamoto, "Will You Go to War? Or Will You Stop Being Japanese?: Nationalism and History in Kobayashi Yoshinori's Sensoron," *The Asia-Pacific Journal*, Jan. 14, 2008; Philip Seaton, "Historiography and Japanese War Nationalism: Testimony in Sensoron, Sensoron as Testimony," *The Asia-Pacific Journal*, August 9, 2010 등이 있다.
- 13 고바야시의 만화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각 중심의 대중민주주의에 관한 것으로는, 飯田美由子, 「可視化された國民國家と快楽のイデオロギー: 情報資本主義下における日本ナショナリズム」, 伊藤守 編, 『文化の実践, 文化の研究: 増殖するカルチュラル スタヂデイズ』, 세리카書房, 2004 참조.

을 보이고 있으며, 언설의 가시화 전략은 기형화, 기호화 그리고 평면화로 압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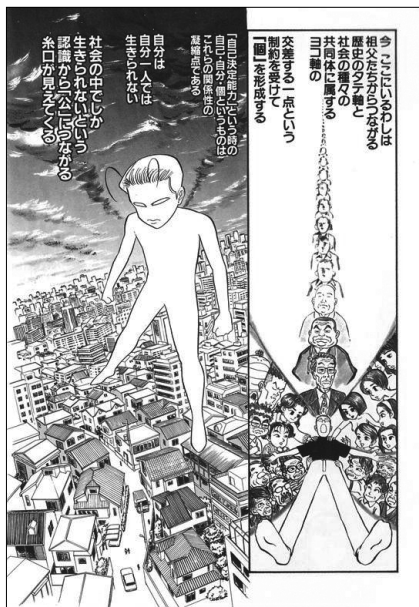
2. 우익 대중주의 언설의 재구성

『전쟁론』 및 그 외의 『신오만주의선언』 시리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서사들은 공(公)과 개(個)의 대칭구도다. 공과 개의 대칭 속에서 만들어지는 언설은 반기성세력적, 상식주의적 그리고 국가귀속적 특징을 띠고 있다. 고바야시가 제기하는 현대 일본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공(公, おおやけ)의 상실이다. 그 요인으로 『전쟁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전후 평화 속에서 만들어진 “반전평화”주의에 근거한 전쟁기억이다. 반전평화주의적 전쟁기억은 일본이 수행한 과거의 ‘대동아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후 일본인은 전쟁 중 ‘공’을 위해 ‘개’를 희생한 일본인을 망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¹⁴ 따라서 현대 일본사회에서의 ‘공’의 재건은 동시에 ‘공’을 위해 희생한 ‘개’,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쟁기에 싸우다 간 우리들의 조부”의 호명을 통해서다. 이 과정에서 “조부와 연결되는 역사의 세로축과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에 속하는 가로축이 교차하는 한 점으로서의 ‘개’가 형성”된다는 것이다(〈그림 1〉 참조).

전쟁기에 ‘개’는 어떤 ‘공’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을 희생한 것일까? 그 ‘공’은 바로 “구미 백인 제국주의”에 대항한 “태평양전쟁” 즉, “아시아에서 구미침략군을 추방한 전쟁”으로 기억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런데 어떻게 “아시아의 해방”이라는 ‘공’을 위해 희생된 ‘개’가 망각되어졌을까? 그것은 “전후 민주주의 좌익체제” 형성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졌다고 고바야시는 주장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그에 의하면, 패전 직후 나타난 “좌익”세력은 “일본은 침략전쟁을 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

14 小林よしのり, 『新ゴーマニズム宣言 SPECIAL 戦争論』, 幻冬舎, 1998, 7~19쪽.



〈그림 1〉 지금 여기의 나는 조부와 연결되는 역사라는 세로축과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라는 가로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고 그리고 있다.
출처: 『전쟁론 1』, 206쪽.



〈그림 2〉 “태평양전쟁”은 “인종전쟁”이었고, 일본은 아시아인을 위해 “구미 백인 제국주의”에 대항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출처: 『전쟁론 1』, 31쪽.

다”, “아시아에 폐를 끼쳤다”, “일본은 가해자이며, 악이다, 깊이 반성해라”, “사죄해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새로운 공기를 일본사회에 주입시켰다는 것이다. 비록 오늘날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며 반권력적인, 진정한 좌익은 극소수”이지만, 이러한 소수의 “잔존좌익”은 집념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한다. 이들은 “신문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TV 및 잡지 등의 매스컴에서 활동하고 있고, 교육계에 꽤 있으며, 사법관계에도 존재하며, 국외에서까지 암약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잔존좌익”에 조종되는 “부드러운 좌익의 시민그룹”(うす甘いサヨクの市民グループ)이 “인권, 평등, 자유, 페미니즘, 반전평화 등의 사상”으로 전후 민주주의체제를 만들어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후 민주주의는 ‘좌익’이다”라고 규정짓고 있다.¹⁵ 이러한 “좌익 현체제”는 “여론 조작”과 “언론 탄압”을 통해 “전후 민주주의”를 전

15 小林よしのり, 『新ゴーマニズム宣言 SPECIAL 戦争論』, 19~24쪽.



〈그림 3〉 “좌익”이 일본의 체제이고, 이 “전후 민주주의 좌익” 체제를 위협하는 자신이 바로 “반체제”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전쟁론 2』, 40쪽.

파하고 있기 때문에, “반체제”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고바야시는 주장하고 있다(〈그림 3〉 참조).¹⁶

고바야시가 전개하는 “반체제”적 활동은 지식인, 관료를 포함한 “전후 민주주의자”를 “상식의 바다에 침몰시키는” 상식주의를 택하고 있다.¹⁷ 『전쟁론』에서 “상식의 바다”는 종종 고바야시의 글을 읽고 후기를 보내는 독자의 편지로 나타난다. 그가 소개하는 편지는 전쟁을 직접 체험한 70대의 “전중파”(戰中派), 전중파 부모를 둔 30대 및 40대, 그리고 고바야시의 어린 이 대상 만화를 읽고 자란 더 낮은 연령대의 다양한 남녀노소가 보내온 것이다. 이들 편지가 만들어내는 “상식”은 과거의 전쟁은 결코 “무의미한 전쟁”이 아니었고, ‘공’을 위해 희생한 ‘개’들의 숭고한 “이야기”라는 것이다.¹⁸

16 小林よしのり, 『新ゴーマニズム宣言 SPECIAL 戦争論 2』, 幻冬舎, 2001, 40쪽.

17 小林よしのり, 『新ゴーマニズム宣言 4巻』, 小學館, 1998, 24쪽. 그는 또 “나에게는 지식 등에 입각한 사상 등은 없고, [내가] 가치를 말하는 근거는 내 자신의 직관, 상식뿐이다”라고 적고 있다. 小熊英二, 「〈左〉を忌避するポピュリズム」, 19쪽, 재인용.

18 小林よしのり, 『新ゴーマニズム宣言 SPECIAL 戦争論』, 46~48쪽; 小林よしのり, 『新ゴーマニズム



〈그림 4〉 어른부터 아이까지 철저히 “공공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전쟁론 1』, 101쪽.

고바야시가 글과 그림을 통해 만들어내는 반체제적, 상식주의는 일종의 대중주의(populism)라고 할 수 있다. “일본형 대중주의”는 “단순히 의회를 우회해서 대중에 호소할 뿐만 아니라, 대중적 지지를 배경으로 분권화되고 기득권, 이익집단화된 ‘철의 삼각형’(관료, 의원, 업계에 의한 ‘철의 삼각동맹’)에 공격을 가해, 그 권익과 권한을 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주의는 “정치가 및 관료에 대한 불신을 역으로 정치 시스템 구성 원리에 대한 신뢰의 기초로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개혁의 대상으로 하는 혁신 세력은 잘 사용하지 않고, 보수 세력에 의해 빈번히 사용되는 방법이다.¹⁹ 고바야시의 상식주의 역시 국가 시스템 전복을 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국가에 귀속되는 ‘개’를 호명함으로써 국가의 구성 원리를 보다 견고히 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

고바야시는 “‘공을 위하는 것’은 곧 ‘국가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거의 같은 의미가 아닐까”라고 반문하면서 ‘공’을 ‘국가’와 거의 동일시해서 사용하고 있다.²⁰ 그런데 “전후 일본이 ‘국가’를 부정”했기 때문에 “‘공’의 기준이 상실되고, 모든 공동체를 부정하는 개인주의”로 일본사회는 귀결되고, “어른에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공공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다(〈그림 4〉 참조).

宣言 SPECIAL 戦争論 2』, 64쪽, 71~74쪽 참조.

19 大嶽秀夫, 『日本型ポピュリズム: 政治への期待と幻滅』, 中央公論社, 2003, 121쪽.

20 小林よしのり, 『新ゴーマニズム宣言 SPECIAL 戦争論』, 342쪽.



〈그림 5〉 “대동아전쟁”이 “가장 아름답게 잔혹한, 그래서 숭고한 싸움”이었다고 재평가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기원하고 있다.

출처: 『전쟁론 1』, 368~369쪽.

고바야시는 “좌익 역시 ‘공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공의 범위가 ‘국가’가 아니고 ‘세계’”라고 지적하며, 그에게는 “공은 ‘국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들의 공공심이 통용되는 범위를 일본 국내”로 한정 짓고 있다.²¹ 이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넘어 ‘공=국가’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생겨야 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는 생각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키운 국가를 위해서’라는 생각과 거의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곧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전시기의 특공대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고바야시의 첫 번째 『전쟁론』은 이들 특공대원을 포함해 “개를 극복한 용기 있는 영령들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그림 5〉 참조).

21 小林よしのり, 『新ゴーマニズム宣言 SPECIAL 戦争論』, 341쪽, 346쪽.

고바야시에 의해 재구축된 현대 일본 우익의 서사는 이처럼 “공의 상실”이라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우파의 전쟁기억을 불러내는 형식을 띠고 있다. 전후 일본의 민족주의에 대해 분석을 해온 오구마 에이지는 고바야시로 대표되는 “폴뿌리 보수운동”을 냉전 이후 현대 일본사회에서 증폭되어 나타난 “‘가치관의 동요’에 기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타나는 일종의 “‘치유’ 민족주의”라고 지칭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당초의 가치관의 동요에서 탈출하기 위한 무정형의 움직임에, 보수 민족주의자의 ‘보수 레토릭’이 접목되는 형태”로서 출현했다고 보았다.²² 그러나 『전쟁론』으로 대표되는 고바야시의 만화가 전후세대를 중심으로 널리 소비되는 것이 현대 일본사회에 만연한 “불안”이라는 해석은 이러한 “폴뿌리 보수운동”이 특히 1990년대부터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충분한 해답을 제시하기에는 너무나 모호하다. 이 지점에 대한 해명은 바로 고바야시가 전개하는 언설의 가시화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3. 우익 대중주의 언설의 가시화

고바야시가 반기성세력적, 상식주의적 그리고 국가귀속적 서사를 가시화하는 데 사용한 매체는 만화다. 고바야시가 재생산하고 있는 우익 언설의 작동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화라는 매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마셜 매클루언이 그의 고전 『미디어의 이해』에서 밝힌 것처럼 “미디어가 바로 메시지”(the medium is message)이기 때문이다. 즉 매체는 내용의 전달 수단일 뿐만 아니라 소통의 형식, 형태, 그리고 규모를 규정함으로써 동시에 내용을 구성하기도 하기 때문이다.²³ 만화는 글과 그림의 공존인데, “회화의 산물인 캐리커처는 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종종 언

22 小熊英二, 「〈左〉を忌避するポピュリズム」, 26쪽.

23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ew York: Signet Books, 1964, p.24.

어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런 결합으로부터 점차로 개별적인 그림 위트뿐만 아니라 완전히 연속된 캐리커처들이, 완전히 서로 연관된 그림 언어와 언어 그림 이야기들이 생겨났다.”²⁴ ‘익살스러운, 우스꽝스러운 그림’인 만화(漫畫)는 캐리커처(caricature)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 단어는 원래 이태리어인 ‘caricare’에서 유래한 것으로 과적(過積)의 의미를 가지며, “특징적인 것의 과장”으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²⁵

만화 매체의 본질인 “특징적인 것의 과장”을 바탕으로 한 첫 번째 가시화 전략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이미지의 기형화(奇形化)다. 기형은 특정 형태의 구성 요소 간의 관계가 불균형과 비대칭으로 비틀린 형상이다. 이런 기형은 회화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특징적인 것의 과장”은 동시에 개체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주먹코를 가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가시화하려면 얼굴을 눈, 코, 입, 귀로 개체화해 그 중 코를 기형적으로 과장하는 것이다. 캐리커처가 추해지지 않고, 유쾌해지는 작동 방식은 과도한 개체화로 인해 보편성을 상실하는 단계로 전환되지 않고, 개체성과 보편성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를 때다. 즉 “특별한 것을 과도하게 몰아가며 이로써 잘못된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것에 이상적으로 반대되는 것을 기억”하게 할 때 캐리커처는 유쾌해지고, 코믹한 그림이 될 수 있다.²⁶

만화인 고바야시의 『전쟁론』이 “특징적인 것의 과장”을 통한 기형화를 가시화의 전략으로 취했다는 것은 만화 매체의 속성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고바야시는 ‘현대 일본’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개’의 기형적 확대로 가시화하고 있다. 개체화된 그리고 기형화된 ‘개’는 “원조교제”와 “주부 매춘”으로 인한 “가족 붕괴,”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공직자, ‘문지마식’ 비행 또는 살인을 하는 젊은이 등으로 개체화되고 있다(〈그림 6〉 및 〈그림 4〉 참조).

이처럼 사회 일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상을 기형적으로 부각시킴으로

24 카를 로젠크란츠 저, 조경식 역, 『추의 미학』, 파주: 나남, 2010, 434쪽.

25 카를 로젠크란츠 저, 조경식 역, 『추의 미학』, 185~1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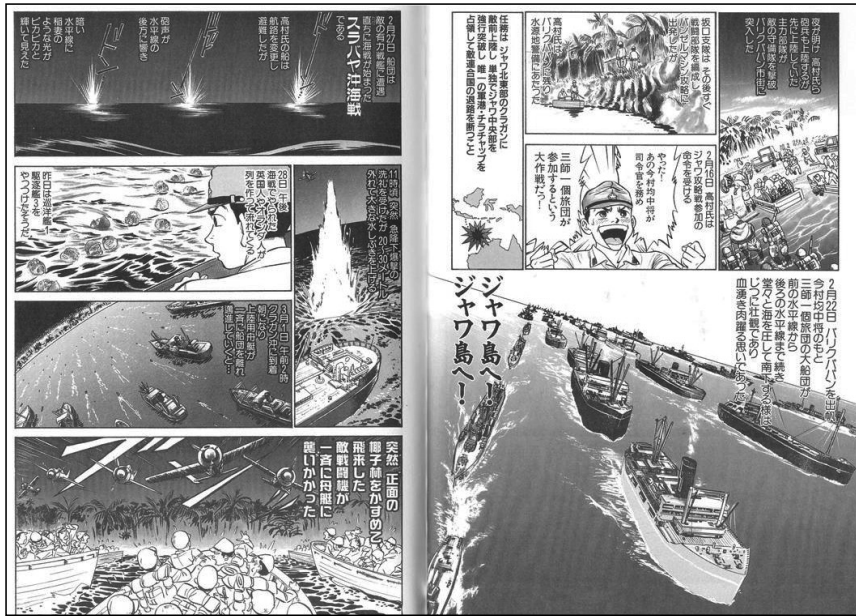
26 카를 로젠크란츠 저, 조경식 역, 『추의 미학』, 399~439쪽 참조. 직접 인용은 187쪽.



〈그림 6〉“주부매춘,” “원조교제.” 젊은이의 폭행 또는 비행 등을 확대하고 있다.
출처: 『전쟁론 1』, 8쪽.

써 ‘이상적인 일본’이라는 개념과 대조되는 ‘타락한 일본’을 가시화한다. 이러한 대립은 독자의 관심을 촉발시킨다. 그러나 과도한 대립은 과도한 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과도한 기형은 자극적으로 전환된다. 즉 “강렬한 대조는 자체로 기존의 올바른 대치를 다방면에 적용해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원래의 의도대로 본질적 관계를 강화하지 못한다. 그 대신에 우리의 주의력을 그 관계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는 수단을 통해 자극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킨다.”²⁷ 고바야시의 『전쟁론』은 ‘공’과 ‘개’의 극단적인 대치를 통해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긴장의 고조를 동반한 극단적인 ‘공’과 ‘개’의 대립은 위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모순, 부의 불평등한 재분배 또는 불평등한 성관계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을 저해하고 있다. 대신에 기형적 일본의 가시화를 통해 『전쟁론』 전편에 걸쳐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이러한 긴장을 극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스케일이 엄청나고 통쾌한”(スケールのデカイ痛快な) 기억으로서의 ‘대동아전쟁’을 호명하고

27 카를 로젠크란츠 저, 조경식 역, 『추의 미학』, 113쪽.



〈그림 7〉“태평양전쟁”기에 벌어진 여러 전투를 박진감 있게 재현하고 있다.
출처: 『전쟁론 1』, 232~233쪽.

있다.²⁸

고바야시가 긴장 해소를 위해 호명한 ‘대동아전쟁’은 기존 우익의 ‘보수 레토릭’을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레토릭’이 지금, 전후 일본 세대에 게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적극적으로 ‘오타쿠 문화’로 대표되는 서브컬처의 기호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일본 사회를 분석하는 데 ‘오타쿠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즈마 히로키(東浩紀)에 의하면 ‘오타쿠 문화’는 더 이상 “커다란 이야기”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표층의 기호”의 소비와 “부호화된 정보의 집적”을 특징으로 한다. 오타쿠 문화의 소비는 많은 경우 소비자의 특정한 상품에 대한 호감(萌え)을 불러일으키는 기호들, 즉 감정이입을 가능하게 하는 기호들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즈마는 오타쿠 문화가 “이야기나 메시지의 부재를 보충하기라도 하듯이 캐릭터 모예를 촉발하는 기법이 과도하

28 小林よしのり, 『新ゴーマニズム宣言 SPECIAL 戦争論』, 210쪽.



좌 <그림 8> “더듬이처럼 빠진 머리”를 가진 대표적인 캐릭터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B%AA%A8%EC%97%90>.

우 <그림 9> 고바야시 만화에서 나타나는 “모에” 기호로서의 “더듬이처럼 빠진 머리”와 “오만 좀 떨어져도 되겠습니까”라는 말버릇

출처: 『전쟁론 2』, 61쪽.

게 발달해 있다”라고 지적하며, “모에 요소의 조합의 묘미”가 특정 오타쿠 상품의 성공 요인이라고 평하고 있다. 아즈마에 의하면 “소비자의 ‘모에’를 효율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발달한 기호”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더듬이처럼 빠진 머리”인데 이 기호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반화되었다고 한다(<그림 8> 참조).²⁹ 이미 소개한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바야시의 작품은 자신의 이미지를 “모에” 기호의 조합으로 시각화하여 독자와 대화하는 양식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더듬이처럼 빠진 머리” 기호가 그것이다(<그림 9> 참조).

이러한 “모에” 기호는 “대부분은 그래픽컬(graphical)한 것이지만, 그 밖에도 특정한 말버릇, 설정, 이야기의 유형적 전개, 혹은 피규어의 특정한 곡선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³⁰ 고바야시는 『전쟁론』에서 “특정한 말버

29 아즈마 히로키 저, 이은미 역, 선정우 감수, 『동물화하는 포스크모던: 오타쿠를 통해 본 일본사회』, 파주: 문학동네, 2001.

30 아즈마 히로키 저, 이은미 역, 『동물화하는 포스크모던』, 85쪽. 그 외 “모에” 기호로는 “고양이 귀,” “동물,” “천사,” “메이드,” “안경”과 같은 것들이 있다(86쪽).

릇”으로서의 “모에” 기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슈 지역 말버릇을 활용해 그의 ‘오만주의’를 기호화한 “오만 좀 떨어도 괜찮겠 습니까?”가 그 예다(〈그림 9〉 참조). 이 문구는 각 장의 말미에 일종의 후렴구 처럼 활용되는 기호로서, 고바야시가 자신의 주장을 요약할 때 사용하는 장 치다. 고바야시는 이와 같이 오타쿠 문화에서 통용되는 기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젊은 세대의 소비를 촉발시키면서, 우익의 큰 이야기인 ‘대동아 전쟁’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에 아즈마는 “냉전 붕괴 후 지금까지 12년간 고바야시 요시노리나 후쿠다 가즈야(福田和也)로부터 도리하다 미노루(鳥肌実)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우익적 언설은 일반적으로 서브컬처화하고 가짜 화하고 오타쿠화함으로써 살아남아왔다고 할 수 있다”라고까지 지적하고 있다.³¹ 즉, 고바야시는 기호화된 도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기존의 ‘보수 레토릭’ 또는 역사관에 독자가, 특히 오타쿠 문화의 알고리즘을 체내화한 젊은 층 독자가 쉽게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가시화 전략은 평면화다. 만화라는 매체가 가 지는 일반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평면 공간에서 이미지가 병렬적 나열되는 것이다. 만화는 사각형의 패널 속에 글과 그림을 넣고, 이러한 패널을 나열 해 이야기를 전개한다. 만화는 패널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해가면서 극 적인 순간을 강조하는 기술 효과를 낼 수 있으나,³² 기본적으로는 평면성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는 매체다.

고바야시는 이러한 매체의 평면성을 활용해 등가로 비교되기 힘든 현 대 일상과 과거 역사를 병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탈역사적, 반문맥적 등가 를 통한 독자의 감정이입을 적극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 하나의 예로 『전쟁론 1』의 제4장 “도쿄재판에 세뇌당한 아이의 개인주의”를 들 수 있다. 상황은 고바야시 만화 사무실에서 전개된다. 고바야시가 화장실을 사

31 아즈마 히로키 저, 이은미 역,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51쪽.

32 Lawrence L. Abbott, “Comic Art: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ities of a Narrative Medium,” *Journal of Popular Culture*, 19(4), 1986; Roger Sabin, *Adult Comic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1993 참조.

용하려고 하는데, “포카큐”(ポカキュー)라는 이름의 직원이 20여 분 전부터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참다 참다 고바야시는 화장실 문 밑으로 살충제를 뿌려 포카큐를 밖으로 나오게 한다. 다른 직원들은 고바야시에게 살충제를 사용한 것은 비인간적이며 너무하다고 비난을 퍼붓는다. 이러한 비난에 맞서 고바야시는 “판결, 변소 범죄, 사형”이라고 선언하고, 이어서 “이제부터 화장실은 민주적으로 1인당 10분씩 사용, 포카큐의 독점은 영구히 금지”한다. 그러자 다른 직원들이 “민주 화장실 만세!”라고 외친다. 이에 고바야시는 “후후후, 도쿄재판에서 미국이 사용한 방식을 이용했다”며 만족한다. 이어지는 그림과 글은 도쿄재판이다. 도쿄재판은 전승국인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이 패전국 일본의 전쟁범죄를 일방적으로 단죄한 “국제법을 무시한 집단 린치”로 정리된다. 일례로 도쿄재판은 일본의 난징(南京)학살을 재판 하면서, 미국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내가 살충제를 사용한 죄를 얼버무리기 위해 포카큐의 죄를 날조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과 같다”.³³ 이처럼 일상에서 일어난 하찮은 사건과 과거 역사 속에서 발생한 결정적인 사건을 평면적으로 병렬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 사건이 유사하다는 착시 효과를 가져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중요한 사건이 하찮고, 가볍고, 우습게 여겨지는 결과도 낳는다.

이미지는 그 자체에 내재한 변치 않는 의미 또는 가치를 결여한다. 이미지의 의미와 가치는 생산과 소비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고바야시는 현대 일본의 서브컬처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미지를 『전쟁론』의 핵심 기호로 적극 활용해 우익의 언설을 가시화하면서 대중적 유통을 시도하고 있다. 『전쟁론』에서 나타나는 기호로서의 이미지는 기형화와 평면화라는 표상 작용을 통해 기존 우익의 ‘대동아전쟁’ 언설을 재구축하고, 감정이입하기 쉬운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33 小林よしのり, 『新ゴーマニズム宣言 SPECIAL 戦争論』, 39~45쪽.

4. 맺음말

『쥐』(*Mouse*)라는 만화에서 홀로코스트의 기억과 전수 문제를 다룬 아트 슈피겔만(Art Spiegelman)은 만화를 “commix”로 표기하면서 “시각 이미지와 서사의 공존”을 만화매체의 특징으로 지적했다.³⁴ 그는 또한 “만화(commix)의 힘은 (이미지와 문자의) 합성적 기능으로 ‘심적 언어’(mental language)에 가장 근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자 또는 시각 이미지 단독으로는 실제 인간의 생각에 다가서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³⁵ 고바야시는 바로 이러한 만화라는 매체가 가지는 속성을 최대한 활용해 일본 우익의 속내를 재구성하고 있다. 그의 서사 전략은 공과 개의 극단적 대립을 통한 긴장 고조, 그리고 고조된 긴장의 극적 해소를 위한 ‘대동아전쟁’의 호명이다. 이러한 서사는 기존 우익의 수사를 차용하면서 반기성세력적, 상식주의적 그리고 국가귀속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어쩌면 식상했을 수도 있는 ‘전통 우익’의 수사가 1990년대 전후세대에게도 통용되는 것은 고바야시가 전개하는 수사의 가시화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고바야시의 『전쟁론』은 한편으로는 만화매체의 속성인 기형화 및 평면화 전략을 극대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대 일본 오타쿠 문화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호화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전후 젊은 세대가 우익 민족주의에 감정이입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었다. 이를 통해 실체로서의, 날것으로서의 일본 우익의 “심적 언어”는 글과 그림 사이 어디선가에서 합성되고 있다.

34 Art Spiegelman, “Commix: An Idiosyncratic Historical and Aesthetic Overview,” *Print*, November–December, 1988, p.61.

35 Art Spiegelman, 재인용, James E. Young, *At Memory's Edge: After-Images of the Holocaust in Contemporary Art and Architectu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18.

과악하고 있는 데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베에게 미는 그가 급진적인 동시에 보수적이라는 모순을 내재한 체로 전후의 법적 질서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각이 없이 ‘생의 안전’을 빌미로 개인에 대한 법적 집행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의 초월성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아베는 법의 정지를 위해 미에 기대했던 미시마보다 더욱 위험할 것이다.

주제어: 극우, 보수, 정치 미학, 아베 신조, 미시마 유키오, 법 폭력

현대 일본 우익 대중주의의 알고리즘: 고바야시 요시노리 『전쟁론』의 언설과 이미지 | 한정선

투고일자: 2013. 11. 19 | 심사완료일자: 2013. 11. 28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논문은 현대 일본사회에서 나타나는 우익 대중주의의 미학을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전쟁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바야시는 만화라는 매체를 적극 활용하면서 우익 사상을 재구성 및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고바야시는 『신오만주의선언』을 하기 시작했고, 역사 문제를 ‘대동아전쟁’으로 호명하면서 기억하는 작업을 했다. 『전쟁론』으로 귀결된 이 작업은 일본 내에서 6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다. 그의 작업을 언설과 이미지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할 때, 그의 언설 전략은 반기성세력적, 상식주의적, 그리고 국가귀속적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언설의 가시화 전략은 기형화, 기호화, 그리고 평면화로 압축될 수 있다.

주제어: 만화, 반기성세력적, 상식주의, 국가귀속성, 기형화, 기호화, 평면화

전후 일본의 방위 구상: 일본 우익 세력의 자위대 구상과 그 실천 과정 | 서민교

투고일자: 2013. 12. 8 | 심사완료일자: 2013. 12. 20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논문은 전후 일본의 재군비 과정, 즉 자위대의 창설 과정을 중심으로 1948년에서 1950년대에 걸쳐 일본의 재군비 구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실천 과정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1950년대에 본격화한 일본 재군비 과정에서 초기에는 배제되었던 구 육·해군의 군인 관료들의 기용은 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GHQ 역사과의 ‘햇토리’그룹을 비롯한 구 육군 출신의 대미협력기관 및 요시다 수상군의 군사고문들의 활동에도 주목해야 한다. 한편 구 해군의 경우는 육군에 비해서 그 해체의 정도가 미약해 패전 후 공식적으로는 육·해군이 해체되었지만, 해군의 경우 소해(掃海)부대를 제외하고 해체되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948년에 설치된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구 해군의 인맥은 육군에 비해 일원적으로 관리되는 창구가 존재했고, 구 해군 군인 중에 요시다 수상과의 인연이 깊은 군인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Y위원회’의 존재에 주목했던 까닭이 바로 그러한 점 때문이다. 1954년 3월에 MSA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대소련 전략을 위해 서방 제국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원조국은 군사력을 강화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으로서 일본은 미국에게 본격적인 재군비를 약속했다. 이렇게 탄생한 자위대는 ‘이름 없는 군대’, ‘군대가 아닌 군대’로서 일본의 방위를 담당하는 물리적 장치로서 기능해 가게 되었다.

지금 일본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동맹국가인 미국이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 일본이 이를 방어해야 한

through “patriotism,” an emotion which cannot be converted into visible value such as “beauty,” is problematic. This is why Abe appears to have radical understanding of postwar democracy, yet on the other hand it can also be understood as a very conservative viewpoint, in light of Mishima Yukio who also advocated the necessity of political aesthetics.

Though it was an important political role of the pre-war Emperor (Ten-no) to bestow beauty on the war dead, Abe, deviating from the old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role of the Emperor, only acknowledges Emperor as a figure who prays for the safety of life.

After all, this shows that Abe’s concept of “beauty” falls into victim of the postwar legal order which paradoxically internalized the conflicting aspects of radicalism and conservatism. Lacking any awareness on the matter, Abe revised the law in order to intensify the legal enforcement under a false pretense of “the safety of life,” which led to further transcendence of the law. In this sense, Abe is more threatening than Mishima, who placed his hope on the beauty in order to suspend the enforcement of the law.

• **Keywords:** Far-right, conservatism, political aesthetics, Abe Shinzo, Mishima Yukio, Legal violence

Kobayashi Yoshinori and Caricaturing Japanese Populism | HAN Jung Sun

This paper explores the strategies and workings of Japanese populism by focusing on the caricatures of Kobayashi Yoshinori. Kobayashi is a well-known cartoonist and his works have been influential in shaping popular opinions on various issues of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In this paper, I limit the scope of analysis on the piece entitled Sensōron, since this is the piece that has been widely received by people in and outside of Japan and has made him a popular social pundit. In analyzing Kobayashi’s strategies of narrating “history issues” and of visualizing such narratives, I identify three strategies respectively for the narrative and the visualization. As for the narrative strategies, they are 1) anti-establishment, 2) common-sense centrism, and 3) nation centrism. As for the visualization strategies, they are 1) deformation, 2) symbolization, and 3) complanation.

• **Keywords:** Caricature, Anti-establishment, Common sense, Nation, Deformation, Symbolization, Complanation

The Defense Framework in Postwar Japan: The Design and Practical Procedures of the SDF by the Japanese Right-Wings | SEO Min Gyo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rearmament in postwar Japan from 1948 to 1950s during which the Self-Defense Force was established, and tries to understand how Japan’s rearmament was designed and what characterized its practical procedures.

As the rearmament process became fully in progress in the 1950s, the recruitment of the military officials of the Imperial Army, the idea which was originally rejected, became inevitable. In this sense, it is essential to pay attention to the activities of the cooperative